



브로일러산업 계열화촉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일본의 육계산업 안정화과정 성공사례 중심으로—

국내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될듯

본회는 안정적인 육계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가금학회(회장 오봉국)와 공동으로 미국 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지부장: 박영인)의 후원을 받아 브로일러산업 계열화 촉진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7월 18일(수) 대전(유성)과 20일(금) 오후 2시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일본 교토상교대학 고마이교수를 초빙하여 일본의 브로일러산업 계열화 도입 초창기에서 현재까지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성공사례, 개선방향,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계열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인데 강사로 초빙되는 고마이교수는 일본의 닭고기 규격제정, 육계산업 계열화 등에 공이 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다.

본회는 전국의 브로일러산업 계열화에 관심 있는 수강자가 많을 것을 감안 충청, 영남, 호남지역 수강자는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 연수원 강당에서(7월 18일), 경기, 강원, 서울지역 수강자는 서울 미국문화원에서(7월 20일) 각각 편의대로 수강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2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가 더욱 성공적으로 행해지

기 위해 우리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코자 고마이교수는 오는 7월 9일 우리나라에 와서 본회와 브로일러 양계농가, 도계장(대형, 소형), 닭고기 판매점, 사료공장, 부화장을 10일 간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현황을 수집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순회 도중 지역별로는 양계인 관계공무원, 도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브로일러산업 계열화 촉진을 위한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및 장소

●대전(유성)세미나

일시: 84.7.18(수) 오후 2시

장소: 대전시 중구 덕명동 33~2

신용협동조합연수원(Tel 822~8504~5)

●서울세미나

일시: 84.7.20(금) 오후 2시

장소: 미국문화원 1층(롯데호텔 건너편)

*수강장소는 각자 형편에 따라 선택

○강사 및 내용

●강사: 고마이교수(일본 교토상교대학)

박영인지부장(미국사료곡물협회)

●내용: 브로일러산업의 계열화(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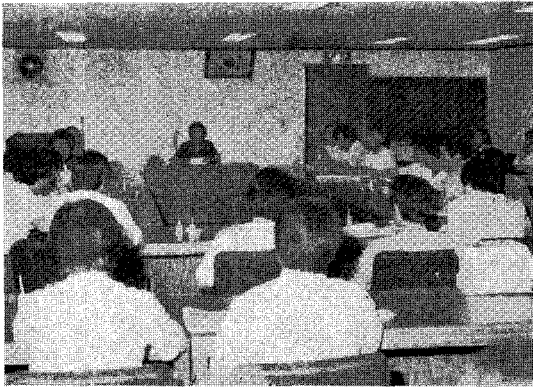
—펜실바니아 등 5개지역은 계속금지—

미국산 가금류 및 생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공문이 농수산부로부터 본회에 접수되었다. (6월 28일)

이에 따르면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5개주중 3개주는 종식되었고 2개주는 종식단계에 이르고 있는바 발생지역 5개주(펜실바니아, 뉴저지, 매릴랜드, 캘리포니아)에 한하여 수입을 금지조치 한다는 것이다.

부화·종계업 회원간담회 개최

—종계10%이상을 감축키로—



부화·종계업자 간담회가 지난 6월 13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박준영 분과위원장은 「체화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육계가격이 폭락하고 세미보다 하이 값이 나온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발표해줄 것을 역설했다.

이어 황인옥 전무는 협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수매계획현황, 가금류 수입 금수조치에 따른 문제점, 동원참치 왜곡 광고건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해 보고했다.

본회의에서는 불황타개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불황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초생추의 과다 출하, 생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격차가 심한 관계로 소비의 위축, 도계육 유통구조등에 기인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 대책으로는 종계를 일찍 도태시키고 입란을 줄일 것과 G. P.S 농장에서 P.S 출하를 감소시키고 각 부화장의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량만큼 부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부화업의 당면 문제인 초생추 가격의 안정화는 특히 육계가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육계가격이 하락할시 덤핑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로 인해 더욱더 무질서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병아리의 최저 가격을 설정, 예약제 실시로 남은 병아리는 도태시키고 우수한 병아리만 출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각자 스스로 입란을 줄이는 것만이 초생추가격 안정은 물론 브로일러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의 마지막 결정사항으로 전국 부화인 및 종계인 스스로가 종계를 10%이상 감축할 것을 결의, 통보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끝냈다.

전국 부화 및 종계업 회원에게

드리는 호소문

전국의 부화 및 종계업 회원 여러분!

본회는 작년 11월에 자기 보유하고 있는 종계를 자율적으로 감축하여 우리가 처해있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간 경기 부양을 위하여 각자 노력해왔으나 육계가격은 금년 봄에 잠시 상승가를 나타낸것 외에는 악성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종계를 감축하지 않는한 이 현상은 장기화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우리 양축 농가를 위하여 축협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닭고기 수매비축 사업을

시행케하고 있습니다만, 닭고기 값은 좀처럼 생산비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3일 본회 부화 및 종계분과위원과 중부지역의 부화, 종계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업계 현황과 정보를 교환하고 불황 타개책을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오늘의 불황은 병아리의 과잉생산 공급에 기인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그간 일부회원은 상당량의 종계를 도태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하므로 전종계장(부화장)에서 과감하게 도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국의 부화 및 종계업 회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계10%이상씩을 감축**합니다. 그리하여 수급의 균형유지와 생산성 제고로 이 대불황의 수렁에서 빠져 나가는데 힘을 모읍시다.

나는 안해도 남이 해주겠지 하는 의타심과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을 털어 버리고 생산조절을 위한 대열에 결연하게 동참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만이 우리에게 살아나갈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양계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화합되고 단결된 우리 힘으로 구축합시다.

1984. 6.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제 3 차 감별분과 위원회 개최

본회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채인)는 지난 6월 8일(금)분과 위원회를 부산·한미감별학원에서 전국 감별분과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주요안건은 감별사 해외파견(서독 4명, 부르네이 1명, 호주 4명)을 위원장 주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육계감별을 권장 및 홍보하여 생산자들의 이익을 가져다 주도록 했으며, 일반 사육농가에서 감별료 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데 부화장부담(감별료)으로 유도키로 하고 또한 최근 깃털감별의 정확도가 낮아 착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별사 시험시의 초생추대는 육계 수당 200원, 산란계 수당 180원으로 하고 갑종 수형료를 51,000원, 고등수형료를 114,000원(병아리 값+응시료)으로 결정했다.

기타사항에서 해외 파견된 감별사들과 항상 서신 왕래를 자주하여 정보를 획득, 해외파견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축산단체장 조찬회

—축산식품행정 일원화 방안 건의키로—

축산단체장 조찬회가 본회 황인옥 전무를 비롯 양돈협, 낙농협, 유가공협, 육가공협, 대한수의사회, 축협, 한국축산학회, 수의 공중보건학회 등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3일 팔레스호텔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축산식품 관리 행정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관계당국에 건의문을 제출하되 자료를 충분히 수집 보완하여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계립식품(GP 센타)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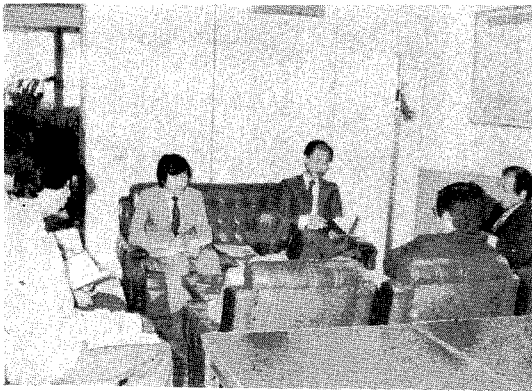


전북지역의 대표적 채란업자 35명은 지난 12일 전주 대륙에식장에 모여 자본금 1억 2천만원의 유한회사 계립식품을 설립하고 정관 채택 등 주요 절차를 마쳤다.

하루 80만개의 계란과 노계처리 등을 주업무로 할 계립식품의 초대사장에는 이기동씨(채란업), 수석이사에는 박옥용씨(채란업), 감사에는 홍용완(채란), 이정열(채란)씨를 각각 선임했다.

전주 근교에 세워질 GPC는 내외자 약 3억으로 설립되고 85년 2월부터는 계란 선별, 세란, 포장 및 가공업무를 통해 품질향상은 물론 유통을 생산자들이 주도해 가격 안정을 이룰것으로 업계의 큰 관심이 되고 있다.

기반조사요원 회의개최 - 6월 18일과 29일 본회의의실 -



전국의 각지역별 양계업계 현황 및 부화장 입란, 출하현황 청취 및 양계산물 시세전망 등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6월 기반조사요원 연석회의가 지난 18일(월)과 29일(금) 각각 개최되었다.

각 지역의 조사요원들로부터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 전국의 부화장 입란현황 및 병아리 출하상황 조사와 지역 양계업계 현황청취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각 분과위원회 회의자료는 물론 입추정보, 시세 정보의 전달, 정책자료도 활용하게 된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최근 여주, 이천지역에서 발생보고가 있는 ND 및 ILT에 대한 의견

교환 △육계 수매비축에 따른 현황보고 △각지역의 불황타개책 모색 △혈청검사 △복중 성수기를 앞둔 육계농가 및 부화장의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특히 부화장 입란 및 부화기 가동현황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5월에 비해 6월은 부화기 가동 숫자가 10~15%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병아리 출하숫자는 15~20%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6월 하순 부터는 각 부화장에서 앞으로 있을 복중 째깍 경기에 대비 입란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의 육계가격은 초부(7월 15일)를 전후해서 약세에서 상승세로 바뀌면서 중부, 말부 때를 피크로 계속 상승하는 째깍경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회 상징「마크」현상 모집

- 8월 31일(금) 까지 -

본회는 양계산업의 알찬도약과 참신하고 새로운 상징아래 모든 양계인이 일체감을 갖고 단결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상징 「마크」도안을 현상 공모한다.

이번 「마크」도안 공모는 시대적 감각에 맞게 제작해 필요한 협회사업(깃발, 뺨지, 인쇄물 등)에 이용할 예정인데 도안내용은 채란, 육계, 부화, 감별 등 양계산업을 상징하고 양계인의 일체감(단결)을 통해 양계산업발전으로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마감은 8월 31일(금)까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 결정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당선작은 월간양계 9월호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색도 : 4 색도 이하

○도안크기 : 20cm×16cm이상

○도안설명 : 별지에 먹도안과 도안설명을 반드시

시 첨부할 것

- 응모마감 : 84년 8월 31일(금)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시상 : 당선작(1편) 및 가작(1편)은 각각 소정의 상금을 드리며 시상일정은 추후 발표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편집국 협회 상징「마크」현상모집 담당자(☎ 778-8103~4)에게 문의할 것.

중계분양 및 도착 현황

금년 5월말 현재 각 원종계(GPS) 농장에서 본회에 보고된 중계분양실적 및 본회가 종계수입추천해 5월말 까지 국내에 도착된 바 있는 중계도착현황은 다음과 같다.

’84 월별 중계분양 및 수입현황

월	육 용 계	산 란 계	계
1	84,700	13,600 (5,000)	98,300 (5,000)
2	107,400	—	107,400
3	178,800 (2,100)	12,460 (13,000)	191,260 (15,100)
4	161,600	8,800	170,400
5	135,900	15,550 (3,120)	151,450 (3,120)

* ()안은 수입추천 현황

동원참치 왜곡 광고 사과

—보상책의 일환으로 소비홍보 키로—

지난 5월20일자 「이코노미스트」 및 5월24일자 「주간매경」에 ‘약주고 병주는 가축의 고기’ 제하의 광고로 전국의 양계인들을 혼분시킨 바 있는 동원산업(주) (대표: 김재철)로부터 지난 6월18일자로 월간양계 7월호(p.99참조)에 사과문게재, 주요일간지에 소비촉진 홍보(한국일보 7월6일자 게재), 「이코노미스트」 및 「주간매경」등 주간지에 광고홍보, MBC-TV에 계란·닭요리프로 방영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작서를 받은 바 있다.

충남지부 사무실이전

본회 충남지부(지부장 이진남)사무실이 아래와 같이 지난 6월 20일자로 이전되었다.

주소 :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0~5

신기빌딩 304호

전화 : 252~9874

○본회 부산 경남지부장 김종경씨 부친상 : 지난 6월 28일 발인. 본회에서는 임덕성 사무국장이 조문차 현지에 출장.

○닭경제능력검정소 조경사업 현수 : 지난호의 현수자중 누락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본회 인천분회 2좌

피 조 개

피조개는 고막류 중에서도 맛과 영양이 뛰어나고 건강식품으로서의 인기가 높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피조개는 다량의 단백질을 함유한 저칼로리 식품으로 그 단백질 조성은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외에 비타민 A, B₂, C와 칼슘, 철분을 위시하여 각종 무기질 등을 가지고 있는 영양식품이며,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과 헤모글로빈의 함량이 많아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헤모글로빈이 1l 당 12.2g으로 사람의 혈액 1dl 당 14g의 헤모글로빈에 비해 매우 많은 양을 가졌고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빈혈예방에 효과가 크며, 특히 칼슘 함량이 많아 항암 및 정신안정에 효과가 있다.

주요 성분 (100g당)

열량 (Kcal)	수분 (%)	단 백 질 (g)	지 방 (g)	탄 수 화 물 (g)	회 분 (g)	무 기 질			VA (IU)
						칼 슘 (mg)	인 (mg)	철 (mg)	
90	76.5	15.1	0.6	6.1	1.7	148	108	7.3	200

(* 농수산부 홍보자료)